

01 교회소식

성령 시대의 크리스천

전 세계 수많은 성도가 초대교회처럼 보혜사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불같은 역사를 체험하며 영적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

02 생명의 말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믿으며 담대한 믿음의 행함을 보일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03 기획특집

성령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함이다.

04 간증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이 넘쳐요~”

하나님 권능을 체험하며 변화와 축복이 임한 최종대 장로와 대상포진을 치료받은 일본 쫘쫘꾸 기요코 권사 간증.

# 만민뉴스

제682호 2015년 4월 19일 (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무수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당회장 이재록 목사는 주님 영접 후 말씀대로 살며 성결한 마음을 이뤄 간구함으로 하나님 권능을 받아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 이 목사를 강사로 진행된 해외 연합대성회에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참임이 증거됐다(1 한주경 찬양선교사, 2 아델리아 알렉산드리아 성도, 3 씨티바브 집사, 4 캐나다 시즈코 성도, 5 세르게이 스타그네예프 목사, 6 박재홍 성도, 7 나다곤 톰마트 전도인).

7년 동안 병 치료를 위해 노력해 보았지만 병세는 깊어만 갔다. 막내아들을 유난히 사랑해 주시던 어머니마저 “차라리 죽는 것이 효도다.”라며 통곡하셨다. 치료될 희망도 살 소망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1974년 4월, 고향 누님이 거동조차 쉽지 않은 서울 동생을 찾아와 간절히 길 안내를 부탁하셨다. 차마 거절할 수 없어 지팡이를 짚고 누님과 함께 현신에 제단 치유 집회에 참석했는데 땀방울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왜 이렇게 갑자기 땀이 날까?’ 다음날 아침, 비로소 모든 질병이 성령의 불로 단번에 깨끗이 치료됐음을 깨달았다.

이처럼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그는 1978년 5월,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 1982년 7월에 교회를 개척하고 1986년 5월에 목사 안수를 받아 현재 세계적인 부흥강사로 전 세계 곳곳에서 연합대성회를 통해 따르는 권능으로 살아 계신 하나님을 전하며, 전 세계 1만여 자·협력교회와 함께 책자,

신문, 방송을 통해 만민을 깨우고 있다.

이 목사가 지금으로부터 41년 전, 위계양, 축농증, 중이염, 임파선염, 류머티즘성 관절염 등 병명을 이루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질병이 많아 병 백화점이라고 불렸지만 일시에 온몸을 깨끗이 치료받아 살아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는 죄악이 관영한 오늘날에도 무수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누구든지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온몸이 뜨거워지고 질병의 근원이 태워지며 어둠의 세력도 힘을 잃고 물러간다. 또 마음의 죄성이 태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도 볼 수 있다.

천상의 목소리로 성도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예능위원회 솔리스트 한주경 찬양선교사(사진 1)는 한때 중증 폐결핵으로 죽음의 고비에 이르렀다. 그러나 당회장 이재록 목사가 기도해 줄 때 병균이 성령의 불로 일시에 태워졌고, 이후 빠르게 회복돼 건강을 되찾았다. 병원에서는 치료받는다 해도 양쪽 폐에 손상이 커서 다시는 노래할 수 없을 거라

고 했지만 그녀는 현재 찬양 사역자로 누구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며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있다.

또한 알코올 중독과 마약 복용으로 가정 이 파탄 위기에 처했던 인도 씨티바브 집사(사진 3)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에게 기도받은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기도받을 때 성령의 불이 얼마나 뜨겁게 임했는지 두 번이나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기도받은 뒤 그는 심신이 평안해졌고 두통도 사라졌으며 놀랍게도 20년간 중독된 술과 10년 이상 복용한 마약을 쉽게 끊을 수 있었다. 가족과 함께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는 현재 오토릭사(소형 영업택시)를 운전하며 교회에서 충성하는 성실한 가정이 됐다.

중증 수족 냉증으로 치료불가 판정을 받은 일본 캐나다 시즈코 성도(사진 4)는 위장과 허리, 발목, 발바닥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있었고, 핫 팩을 몸 곳곳에 붙여야 했다. 그런데 권능의 손수건으로 기도받은 순간 머리 위가 뜨거워지고 땀이 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상태가 1시간 이상 지속됐다. 그 뒤 몸속을 파고들던 추위와 통증이 더이

상 느껴지지 않았다.

이스라엘 아델리아 알렉산드리아 성도(사진 2)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호지킨 림프종을 치료받았고, 러시아 세르게이 스타그네예프 목사(사진 5)는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뜨거운 불을 받고 허리 통증이 깨끗이 사라졌다. 태국 나다곤 톰마트 전도사(사진 7)는 다니엘철야 기도회에 참석해 간절히 기도하던 중 성령의 불을 받아 유방 멍울이 사라졌고, 박재홍 성도(사진 6)는 큰 불기둥 같은 뜨거운 기운이 몸 속으로 들어온 뒤 권능의 손수건 기도로 30년 된 무릎 연골 및 인대 파열을 치료받았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불같이 뜨겁게만 임하는 것은 아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하게 임함으로 상한 심령을 치유하기도 하고, 시원한 바람같이 임해 시원하고 후련해지는 은혜를 주시기도 한다. 또 우리 교회에서는 무안단물(출 15:25), 각종 기사(奇事), 사진기도 등을 통해 희한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통회자복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

## 첫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신 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그 결과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구세주 되심과 부활하심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게 됐다. 하지만 마음에 죄성이 있어서 원수 마귀 사단이 세상의 향락과 물질과 명예 등으로 유혹해(벧전 5:8) 마음을 격동시키면 거듭 죄를 지어 다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영접하고 통회자복한 성도들의 마음 안에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영을 낳아 주님의 마음을 닮은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인도하시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주님의 제자들도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받기 전에는 꾀박과 고난을 두려워하는 모습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 권능을 받아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 또한 원수 마귀 사단을 물리치며 능력과 권세, 권능까지 나타나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 둘째,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위함이다.

보혜사 성령의 가장 주된 사명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감동을 주며 회개시켜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도록 돕는 영으로서 일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성령이 탄식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음에 곤고함으로 느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민망하고 죄송한 마음에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며 회개하고 돌아길 용기도 갖지 못한 채 영적으로 침체되는 경우가 많다. 이때도 로마서 8장 26-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대신 간구해 주신다.

이처럼 보혜사 성령은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살리기 위해 항상 하나님 앞에 대신 간구하신다. 오히려 당사자보다 더한 탄식과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 그리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통회자복 할 수 있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우리가 어떤 연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능히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할 수 있다. 보혜사 성령이 마음 안에 계셔서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 깨우쳐 주시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한다면 보혜사 성령은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결국 소멸돼 구원과 상관없게 된다(살전 5:19).

만일 성령이 소멸되면 다시 성령을 받기란 쉽지 않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수히 참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결국 성령이 소멸됐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많이 쌓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령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신속히 마음의 비진리를 벗어 버리고 빛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이다.

## 셋째, 사람의 능력으로 깨뜨리지 못하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능히 깨뜨릴 수 있음을 성령의 권능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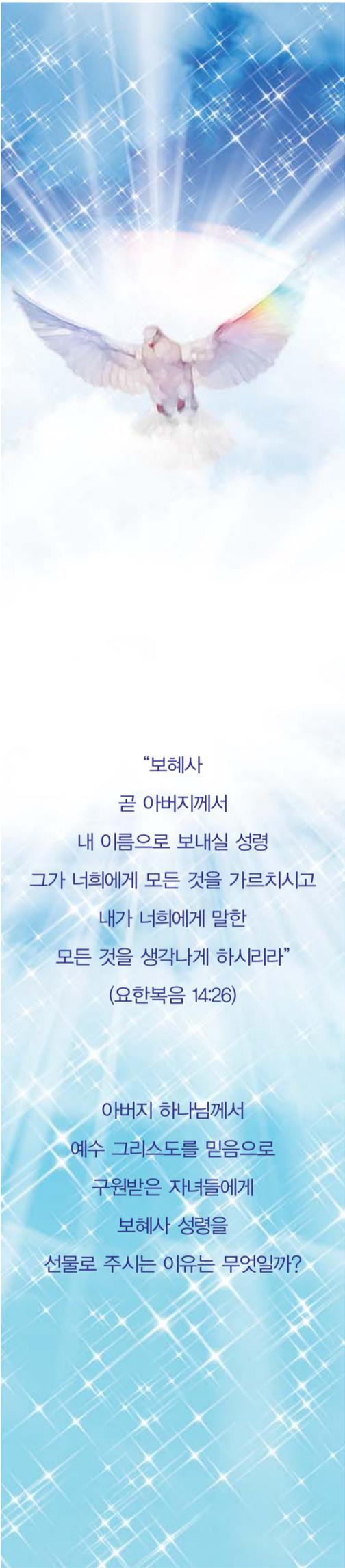
오늘날처럼 잘못된 지식과 이론이 넘치는 세대에서 단지 말로만 복음을 전한다면 순순히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은 적다. 너무도 단단한 육신의 생각의 틀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싸고 있음으로 인해 복음이 들어갈 틈이 쉽게 나지 않기 때문이다.

참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의 육신의 생각을 깨뜨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과 사람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들을 보여 주고 체험케 해야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참임을 깨닫게 된다. 바로 이 일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도록 끊임없이 깨우쳐 주시고 마음을 두드려 주신다. 마음 안의 미세한 악의 모양도 버릴 수 있도록 발견케 하시고 깨우쳐 주신다. 그래서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된 자녀들을 통해 원수 마귀 사단을 제압할 수 있는 영적 권세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합해진 권능을 나타내신다.

성령의 권능으로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요 4:48). 죄악이 관영해 참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마지막 때에는 더욱 크고 놀라운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확실한 기사와 표적을 보이심으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예수의 구세주 되심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깨달아 신속히 성결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되어 마지막 때 성령의 도구로서 귀히 쓰임 받기를 바란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26)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GCN 주요 프로그램 안내**  
2015년 4월19일~4월25일

**이재복 목사의 생명의 말씀**

- 우리의 열심은 5
- 축복 5
- 주님의 마음 6-10
- 사랑장 6-10
- 믿는 자의 복 6
- 예언 6
- 지옥 10-14
- 일곱교회 15-19
- 2차 영혼육 11-15
- 창세기 강해 43-47
- 요한계시록 강해 57-64

**GCN TV설교**

- 순교 (이수진 목사)
- 계은 자 2 (이미영 목사)
- 능력 1 (이화선 목사)
- 능력 1 (이화선 목사)
- 옴기 강해 13 (신동초 목사)
- 열 재앙 10 (정구영 목사)
- 성령의 9가지 열매 3 (김수진 목사)
- 두루마기를 빼는 자 (김승신 전도사)

**애능 프로그램**

- 일곱달콤 여여쁜 울동 33
-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1
- English 2
- 옛날 옛적에 14
- 즐거운 요리 17
- 내 마음의 찬양 10
- 흥겨운 소리 4
- 창조와 과학 8
- 모두 드려요 26
- 뷰티풀라이프 14

**해외성회 및 교육**

- 페루 연합대성회 1
- 회상 5

GCN HD 채널  
ktolleh tv 882번

위성, 인터넷, 인터넷TV방송 A/S 문의 1577-2073

1985년, 결혼 후 충북 제천에서 의류 사업을 시작했으나 사업은 뒤로 하고 춤에 빠져 살았습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카바레에 출근했고 때로는 지역을 떠나들며 춤추러 다니니 사업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지요.

1987년 7월 상경한 저는 믿음은 없었어도 교회는 안전한 곳이라 생각해 아내와 어린 아들을 우리 교회에 다니도록 했습니다. 아내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저는 주일 1부 예배만 드리고 경마장이나 당구장에서 놀다가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들어가곤 했지요.

자연히 부부 싸움은 잦았고, 아내에게 헐기를 내며 전화를 걸어 던지는가 하면, 문을 열어 주지 않을 때에는 유리창을 깨고 집에 들어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15일 금식기도를 올리더니 확 달라졌습니다. 제가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거나 밤늦게 집에 들어오는 등 싸움이 될 만한 어떠한 일에도 대항치 않았지요. 참 신기했지만 제 삶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였습니다.

1989년 9월, 저는 신경성 위염으로 4개월 동안 침을 맞고 한약을 먹었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복부 중앙에 타구공보다 더 큰 돌맹이같이 단단한 것이 잡혀지고 복통으로 인해 기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 기도를 받고 깨끗이 치



최종태 장로가 운영하는 양복점 '테일러드 옴' 앞에서 아내 정혜순 권사, 아들 최관진 장남과 함께.

료됐고, 술 담배까지 끊게 됐지요.

이후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즐겨 들던 트로트 가요 테이프를 버리고 승용차 안에는 설교와 찬양테이프를 바꿔놓았지요.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며 영혼 구원에 힘썼습니다. 장남인 제가 하나님을 믿은 후 술 담배를 끊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니 아버지는 제사 대신 추도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지요.

그러던 1999년 8월, 경기도 청운수련원에서 남녀장년 하계수련회가 열렸습니다. 둘째 날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 운동장에 도착했는데,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바람도 불지 않으며 뜨거운 태양만이 작열했습니다.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도착하신 후 행사와 날씨를 위해 기도해 주시자 갑자기 동서

남북에서 구름들이 몰려와 태양을 가렸고, 시원한 날씨 속에 체육대회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체험은 제게 큰 믿음이 됐고 주의 일에 충성하는 계기가 됐지요. 2000년에 장로가 됐고, 실업인선교회, 군선교회 회장단으로, 2005년부터는 8년간 남지역장연합회 회장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나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2011년 6월, 금요일야 2부 특별은사집회 시간에 당회장님께서 “지역장, 조장, 구역장연합회 회장단 중에 아직도 헐기를 버리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제 자신임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을 할 수 있었지요. 다음 날인 주일 아침에는 당회장님께 회개하고 회원들 앞에서도 눈물로 회개했으며, 아내 정혜순 권사에게도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매일 밤 다니엘절야 기도를 하면서 '나로 인해 힘든 분들이 많았겠다.'는 깨우침과 함께 내가 옳다 하는 의와 틀 속에 내 주장을 꺾지 않았던 일,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서운해한 일 등 하나하나 회개했습니다. 또한 별미기도를 올리며 한 끼 또는 하루, 3일 금식을 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시며 여러 모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지요.

그리하여 2014년 4월, 저는 아름다운 영의 마음을 이룰 수 있었고 가장이 변화되니 가정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양복점 '테일러드 옴'에도 축복이 넘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를 가장 좋은 천국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영육 간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참 목자를 만나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쫘쫘꾸 기요코 권사**  
(74세, 일본 동경타바타만민교회)

저는 교회에 다니면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과 성경 난해 구절 해석에 관해 궁금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확히 풀어주고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참된 목자를 만나기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만민중앙교회와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알게 됐고 2003년 3월부터 동경타바타만민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온전한 주일성수와 십일조 헌금에 대해, 천국과 지옥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

면서 참 목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도 체험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했지요.

2006년 5월, 오른쪽 눈 주위와 코, 입 주위를 비롯해 귀 안에 붉은 발진이 생겨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심했습니다. 숨을 쉬기도 힘들고 몸서리 칠만큼 아파서 다른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지요. 대상포진이었습니다.

저는 오로지 하나님께 의지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한 뒤 화상을 통해 당회장의 환자 기도를

받고 무안단물을 뿌리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정경태 담임목사님에게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았는데 깨끗이 치료됐지요. 할렐루야!

또한 간호복지사 국가시험(1급에 응시했는데, 그때도 당회장의 기도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사명을 감당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처럼 참 목자를 만나 성경을 바로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예배에 주일 자매배, 금요일야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부산만민성결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70-8223-4191~4, 010-4182-4194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3, 백성 5/D 7층 ☎051)326-1537, 010-7213-6207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3층 ☎010-8020-7333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 50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3771-7970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동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3278-7712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암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2634-5478
- 천안만민성결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변영1로 34 3층 ☎041)881-7000, 010-3030-7025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변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새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안로 17, 2층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김해대로 2421 3층 ☎055)322-7055, 010-6605-2254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5층 ☎055)289-9522, 010-9331-4405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용남면 남해안도로 529-32 ☎055)648-9107, 010-7224-8891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백률로 76번길 45-1 ☎054)748-5777, 010-3747-5777
- 포항만민성결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로 177 4층 ☎054)281-9367, 010-8433-207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3층 ☎054)281-2468, 010-9773-701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여수만민성결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목포만민성결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301호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2층 ☎070-4028-2515, 010-2536-2515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3동2층) ☎063)853-0675, 010-3637-0263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3층 ☎063)468-7027, 010-7777-702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3층 ☎033)261-4217, 010-2759-701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3층) ☎033)637-0271, 010-7733-1327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3층 ☎033)641-3790, 010-6334-7750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연생빌딩 5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 424, 3층 ☎032)863-9857, 010-8927-2073
- 경인지성전 인천시 서구 원정로 162 ☎010-7133-9770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탈로 95 ☎010-7103-4097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우빌딩 지하 ☎02)489-3766, 010-7103-409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대로 112, 5층 ☎010-7133-9770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43, 2층 ☎031)202-8480, 010-8331-1136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충리천로 126-7 ☎031)635-9103, 010-9458-3922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